

# 2024년 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1.23. 14시30분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8/10	5	1	14	○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손영준, 허인순, 서신석, 진한수,  
박화선, 안성희, 이상헌, 이성우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대표이사, 전무이사,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 경영진 외 : 시청자센터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5	-	-	-	15	-	15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5	-	-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p>보도</p>	<p>지역 기사는 사실 모든 국민이 보는 기사입니다. 연합뉴스TV 지역기사는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뉴스는 해당 지역 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 모두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스트레이트 위주로 처리하기 보다는 가급적 리포팅을 통해서 더욱 다채롭고 심층적인 내용으로 꾸며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손영준 위원장)</p>	<p>주말마다 뉴스캐스터가 시청자들에게 정보가 될 만한 곳이나 현장성이 있는 곳들, 특히 지역의 현장(화전 산천어축제 등)을 다니면서 생생한 분위기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역 보도에 힘 써겠습니다.</p> <p>&lt;24.1월 조치&gt;</p>	<p>'23.12월</p>
<p>보도</p>	<p>12.1일 뉴스17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 보도 관련 국회 현장에서 연결된 기자의 매끄럽지 못한 리포트에 앵커 사과했어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날 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이에 앞서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수용함에 따라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내용에 대한 여당의 공방을 전하는 뉴스였음. 당시 기자는 이동관 위원장 사퇴에 대한 야당 원내 대변인의 입장 발표 이후 여당 원내 대변인의 입장 발표를 내보내기 직전 리포트 과정에서 약 5~6초간 리포트가 중단됨.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침묵이 이어졌지만 다행히 기자는 곧 침착하게 보도해야 하는 지점을 찾아 리포트하고 여당 원내 대변인까지 연결되어 마무리할 수 있었음. 아마도 초년 기자의 긴장이 실수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짐. 이날 초년 기자의 실수도 아쉬웠지만, 매끄럽지 못했던 리포트에 대한 앵커의 사과가 없어 시청자 입장에서 더 아쉬웠음. (이성우 위원)</p>	<p>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시청자가 보기에 좀 어색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정도면 해당 진행프로그램에 사과를 하는 것으로 교육 실시함.</p> <p>&lt;24.1월 조치&gt;</p>	<p>'23.12월</p>
<p>총 건수</p>		<p>2건</p>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24. 01. 01.~ '24. 12. 31.)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김흥태	1969.11.7	(현)법률사무소 심평변호사	-	18.7.1.~24.6.30
임윤주	1985.08.28	(현)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	-	21.11.01~25.10.31
안지연	1989.06.27	(현)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	23.02.01~25.01.31
박세진	1981.08.06	(현)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	23.06.01~25.05.31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24. 1. 1. ~ '24. 12. 31.)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위원장	손영준	현)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전)국회 언론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학회	언론 학술	
부위원장	안호림	현)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편집위원	성정문화재단	문화	
위원	허인순	현)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 전)한진엔지니어링 설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	
위원	서신석	현)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사무총장 전)한국유비쿼터스협회 부회장	전국학교운영위원 연합회	학부모 단체	
위원	강건기	현)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학기술 단체	
위원	진한수	현)법률사무소 익선 대표변호사 전)서초경찰서 상담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단체	
위원	안성희	현)선진노무법인 부대표 전)서울특별시 마을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 단체	
위원	이상헌	현)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전)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 팀장	대한상공회의소	경제	
위원	이성우	현)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외협력실 과장 전)한국경제협업협회 자문위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 등 소외단체	
위원	박화선	현)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장 전)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부부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	
변 동 사 항					
위원	김희중	현)중소기업중앙회 편집국장 전)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	임기만료 22.1.1~23.12.31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출연, 인터뷰 동영상을 web에 올려 놓을뿐 인터뷰이(interviewee)나 대담자 발언에 대한 text service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text가 제공되는 것 같다. 대부분은 사회자나 앵커의 질문 Q-sheet만 나열하고 정작 알맹이인 text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Text 제공에 어	대답을 하루에 7~8번 정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텍스트 서비스 나가는 거는 한 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요 인사가 대답을 한 경우에만해서 텍스트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질문지만 올려놓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경쟁사인 YTN만 해도 모든 대답을 다 질문 대답 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면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 AI 기술 발달로 audio를 text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텐데 왜 공들여 제작한 대담, 출연 text를 제공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24시간 뉴스채널인 연합뉴스TV를 실시간으로 본방사수하는 시청자도 많지만, 온라인 web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동영상을 빨리감기 기능으로 볼 수 있지만 불편하다. 출연 대담의 경우 text service를 같이 제공하는 것이 시청자에 대한 온당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Text는 역사의 기록이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야 우리 사회 공론장을 책임지는 공영언론인 연합뉴스TV 위상이 더욱 탄탄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손영준 위원장)</p>	<p>올려놓죠. 일부는 축약해서 올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다 올려놓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TV볼 때도 자막 누르면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걸 활용하면 조금 쉬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자동 자막이 그대로 내보내기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얘기하는지를 구별을 안 해주구요. 오류가 많아서 그냥 내보냈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 손이 별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텍스트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비용은 조금 들더라도 해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p>			
<p>보도 *시청자 불만활용</p>	<p>자막 스크롤 방식 변경 고려, TV뉴스 보도에 있어서 자막은 시청자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소리를 끄고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자막은 내용을 알리기에는 좋은 도구입니다. 연합뉴스TV의 자막 스크롤은 위에서 좌로 흘러서 나옵니다. 시청을 오래보다보면 눈이 아프고 워딩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YTN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안호림 부위원장)</p>	<p>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시청자들의 지적도 있었고 방통위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자막 스크롤 형식을 좀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 양 옆이 좀 넓으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 좌측에는 시계가 있고 또 우측에 있는 주가지수 등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가 짧는데 비해 요즘 스크롤은 많이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흘러갈 때 스크롤 한 개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YTN이 하는 것처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보도 제작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하반기 중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p>	○		
<p>보도</p>	<p>총선관련, 우리나라도 총선이 현재 80여일 정도도 안 남았지만 올해는 전 세계 국가의 절반정도가 중요선거</p>	<p>올해가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은 해인데 우리 총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선거가 전체적으로 많다는</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를 치르기 때문에 단순 정치뉴스 전 달외에도 글로벌적 흐름도 짚어주는 특집이나 기획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전 지구촌 선거의 해인 만큼 국내정치를 넘어서 전체 큰 흐름을 조망하는 기획편성도 필요해보입니다.(안호림 부위원장)	것을 같이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6일 뉴스 프 리즘에서 세 꼭지 정도 다룬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 내내 이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또 기획 를 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기업기상도] 제철 만나 맑은 기업 vs 역풍 맞아 흐린 기업, 한 주간 기업 들의 희소식과 악재를 아주 쉽고 귀 에 속 들어오는 설명으로 내용이 알 차고 좋았습니다. 한가지 옥에 티라 면 기자님의 기사 전달 위치가 이슈 에 따라 계속 좌우로 이동을 하다보 니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기업기상도라는 타이틀 답게 기상뉴스 컨셉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주제가 경제뉴스다 보니 이동 동선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신선함과 정확한 경제뉴스 전달의 두마라 토끼 를 다 잡으실 수 있으실걸로 판단합 니다.(허인순 위원)	'기업기상도' 진행자가 왔다 갔다 하 는 것은 저희 나름은 역동감 내지는 생동감을 주려고 하는 의도였는데요. 너무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면 집중 도를 위해서 움직임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		
보도	[경제] '운전석이 사무실로'...CES에서 공개된 미래차, 미국 CES 관련 소식 으로 행사에서는 가전제품뿐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도 큰 관심을 모았는데 요. 앵커와 기자간 두 번의 연결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대기 시간이 좀 길어 아쉬움이 있었고, 기아가 공개 한 목적기반 차량을 설명할 때 기자 의 어색함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국 내 자동차 업계들에서 선보인 새로운 모빌리티를 소개해 준 내용은 유익했 습니다.(허인순 위원)	요즘 현장연결은 다 인터넷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특히 해외하고 연결할 때는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라서 쉽게 해결이 될지 는 모르겠습니다. 현장 연결시에 어 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에 대해선 해당 기자가 신문에서 방 송으로 온 지가 얼마 안된 저연차 기 자이다보니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의 테마별 카테고리 분류가 시청자들이 영상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체계적으로 잘 분류된 것 같다. 특히 CES 2024현장 카테고리는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관심이 있는 라스베가스 소비자전자제품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 뉴스와 영상을 모아 놓아 전시회에 직접관람을 하지 않아도 현장감 있는 느낄 수 있게 하였다. CES 2024현장 영상들을 보면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들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과 미래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사회현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영상을 모아 분류해 놓은 것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시청률을 높이는 구성이라 판단한다. 차후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전시회나 박람회 등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고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영상물들을 별도카테고리 분류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 시켜 시청률을 높이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서신석 위원)</p>	<p>카테고리 생성은 무한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현안 카테고리는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CES에 이어서 미국 대선을 지금 하고 있고 조만간 또 총선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서 시청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		
보도	<p>연합뉴스TV 사회뉴스의 2024. 1. 13 토요일야드 방송 제목 : "'경량 칸막이 처음 알았어요'...'자율 훈련'으로 화재 대비' 방송은 요즘 고층아파트 단지 화재와 재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와 재난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시청자들에게 알려 주는 좋은 방송뉴스이었다고 판단한다. 공영방송 보도채널로서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또는 기획보도를 통해서 화재와 재난에 대비한 행동절차와 대피 안전장소 위치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한다. (서신석 위원)</p>	<p>요즘 아파트 화재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 화재의 문제점이라든가 대피 방법 이런 걸 좀 자주 다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 보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화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 대비 요령을 좀 알릴 수 있는 장기간의 캠페인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lt;지방소멸위기 대응...서울 근접 지역 등 쏠림 현상 우려 관련&gt;, 1월 6일 뉴스 오늘 3부에서 '가평에 별장 사도 1주택 특례...일부 지방 쏠림 우려도'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 89곳에 집을 한 채를 더 사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1주택자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구감소 방지를 위해 관광업도 활성화한다는 뉴스입니다. 다만, 이번 정책은 지방소멸위기를 대응하고 서울 근접지역 등 밀집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줄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뉴스는 지적하였습니다.특히,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은 우려를 적절히 지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기자는 정부의 주택기준 정책이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동 기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대응 이슈와 정부 정책의 문제점, 개선방향을 조목조목 잘 분석하고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강건기 위원)</p>	<p>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다양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부동산 특례, 관광업 활성화 정책 보도 등도 하면서 이 문제를 부각해오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이슈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다각도로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		
보도	<p>&lt; 신년인사회 보도 관련 &gt;, 1월 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과기계·정보통신계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는데 연합뉴스TV에서 전혀 다루지 않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요청합니다.(강건기 위원)</p>	<p>최근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출연해서 과학기술 진흥책을 잘 말씀하셨더라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과기계와 정보통신계의 신년인사회도 보도되도록 챙기겠습니다.</p>	○		
보도	<p>[현장의재구성] 北 승계 암투 시작 ... 백두혈통의 딸들 잔혹사 2024 01 08, 현장의 재구성은 정확한 사실 보도보다는 바로 단정적 기사를 쓰기는</p>	<p>'현장의 재구성'이라는 형식 자체가 일반 리포트나 단신에 비해서 딱딱함을 줄이고 재미를 주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뉴스에</p>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p>어려우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비추어 추정되는 행간의 의미를 다소 풍자적으로 보여 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위 기사의 의도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의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다소간의 추측은 가능하겠으나 전문가 등의 분석도 없이 지나치게 단정적인 어휘 등을 사용하여 기정사실화 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어 애초 현장의 재구성의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 현장의 재구성 기사에서 평양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김정은이 우는 모습을 보여 주며 저출산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그 우는 모습을 보여 주며 딸 세습을 위한 연출이라고 하는 것은, 흥미를 끄는 자극적인 화면을 다시 이용하여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호칭 격상 ing라는 표현은 한글과 영어를 접붙인 것 같은데,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에서는 몰라도, 공영 방송에서 특히 자막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진한수 위원)</p>	<p>서 잘 안 쓰이는 영상을 활용해 보겠다는 취지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과 재미 사이에서 잘 균형을 못 잡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 관련 뉴스들은 저희가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카더라 정도의 풍문이 워낙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건 같은 경우는 더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이제 끼워 맞추는 듯한 그리고 선불리 단정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현장의 재구성'도 엄연히 보도 채널에서 볼 때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칭 격상 ing 이런 거는 아마도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표현 아닌가 싶어요. '현장의 재구성'도 일반 TV수상기에 나오는 콘텐츠와는 좀 달리 유튜브적인 속성도 감안해서 만들다 보니까 사용한 것 같은데요. 디지털 콘텐츠의 성격을 가미하더라도 국적이 없는 이런 식의 표현은 공영 방송에서는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p>			
<p>보도</p>	<p>[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주문을 사람이 안받으니'...노령층의 '당혹'시대 [2024.1.13. 오후 10:01], 실생활에서 맞닥드리지만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노령층의 키오스크 서비스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으며 점차 확대되어가는 디지털화된 서비스에 대한 노령층의 접근장벽을 심층취재하여 기획기사로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향후 이러한 디지털격차는 노령화시대에 접어드는 한국사회에 점차 확대될 것이 보여, 추가적인 기획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p>	<p>노인뿐만 아니라 사실 중년층도 자칫하면 디지털에 뒤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피상적인 현상만 다루기보다는 키오스크의 표준화 문제라든가 또는 장애인 접근성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이런 것이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기획보도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국민이 쉽게 쓸 수 있는 키오스크의 표준화문제, 두 번째로는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의 접근성 문제, 세 번째는 시군내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교육이 아닌 공중파 등을 활용한 교육방법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박화선 위원)				
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8.7조원 정책자금...8일부터 신청[2024.1.4. 오후6:13],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자금 지원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지원에 대한 체감도도 높습니다. 본 뉴스에서 정책자금 지원내용을 지원분야별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관심있게 시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은 8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에 그쳤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가 설명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뉴스 내용을 조금 더 시청자 입장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화선 위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금융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지원 방법, 신청 방법을 놓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를 위하는 쪽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면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추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문장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보도	고용브리핑 365 - 연말 최대 10일 휴가 (12/29), 이슈픽이라는 코너에서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종무식 대신 연말 장기 휴가를 즐기는 추세를	작년에 12월에 보니까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상당히 길게 휴가를 많이 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종무식 즈음해서 그렇던데요. 저희도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소개하고 있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온라인으로 열리거나 종무식을 하지 않은 곳들이 많았는데, 올해 삼성·SK·LG 등 종무식·시무식을 하지 않고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신년 인사를 대신하거나 연말 장기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사용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추세가 자세하게 소개되었습니다.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조차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중소기업에도 경영자의 인식 전환이 있다면 충분히 확산될 수 있는 것이기에 장기 휴가 장려 추세를 짚어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들의 '위라벨'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한국에도 일부 기업(220개)에서 '무제한 유급 휴가'가 도입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보수적인 기업문화로 인한 한계 이외에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제약과 유의점도 함께 언급되었다면 보다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안성희 위원)</p>	<p>이제 휴가 패턴이 서구화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기업들이 일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아직도 휴가를 보내는 데 대해서 상당히 주저하고 또 일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대 흐름에 맞게 휴가를 좀 제대로 갈 수 있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방안이라든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p>			
<p>보도</p>	<p>지난 1월 3일 '선진국병 걸린 청년들... 극단선택·우울증 증가'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잘살게 돼도 우울하고 극단선택하는 청년이 늘어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10대 자해/자살 시도가 2018년보다 2022년에 70%나 늘었다는 등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수준의 수치들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마무리 했는데요 사회적 이슈를 다룬 의미있는 보도내용이었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자살예방 상담전화 같이 중요한 정보도 함께 안내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를 온라</p>	<p>저희가 자살 관련 보도에는 그런 안내 자막이 나갑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자살 통계에 기반한 기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보내면서 깜박 놓쳤어요. 앞으로는 이런 통계 기사 작성할 때에도 안내 자막을 넣도록 주의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인에서 보면 보도내용 하단에도 표기를 하던데 실제 영상보도에서는 해당 내용을 노출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소 어색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도내용 외에도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이상헌 위원)				
보도	"짜릿한 겨울 손맛"...화천 산천어축제 '북적'(1.13.), 강원 화천군의 대표적인 지역행사인 '산천어축제가'가 1월 6일 개막해 28일까지 진행됩니다. 2003년부터 열린 이 행사는 매년 100만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세계 최대 여행 매거진 '론리 플래닛'에 2011년 '겨울철 7대 불가사의'로 소개돼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지역행사가 아니라 글로벌 페스티벌의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요즘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나 행사 등을 통해 인구유입이나 관광객 증가 등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산천어축제는 인구 2만 3천명 남짓의 지방 소도시 화천에게는 그야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매우 귀중한 행사다 보니 국민의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합뉴스TV는 국민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산천어축제를 재미나게 소개했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방지할 긍정적 분위기를 전하는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이성우 위원)	보도채널 입장에서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에 관심을 갖고 많이 보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저희가 리포터를 지역 축제 현장에 보내서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또 연합뉴스 지역 취재망과 결합해서 지역 프로그램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각종 지역의 풍물이라고 행사 이런 거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뉴스17, 오후 5시 뉴스, 그 시간대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출연을 해서 각 지역에 대한 소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역이 수도권과 함께 균형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방에서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